

[변호사님 상담 요청]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등, 혼인 빙자 기만에 의한 피해 보상 및 강력한 법적 대응 검토

상황이 길고 복잡하여 전체적인 디테일은 직접 듣고 확인하셔야겠지만, 그 전에 빠른 이해를 돋기 위해 최대한 간추린 내용 먼저 보내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면, 가해자는 몇 년간 교묘하고 악질적인 말과 행동으로 제게 너무나 큰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제 감정을 이용해 대충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있는 사람인지라. 가능하면 제게는 현실적인 가능성 다 열어서 가감없이 자세하게 조언해주시고, 실전에서 상대에게는 철두철미하게 제압이 가능하신, 베테랑 변호사님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저는 가해자의 장기적인 기만과 심리적 조종으로 인해 정신적·정서적·경제적·육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현재 강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저와 몇년간 결혼을 전제로 국제 장거리 연인 관계으로 지내면서도, 동시에 미국 현지에서 다른 여성과 장기간 공개 연애를 하다가, 2025년 1월 말 그 여성과 약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관계를 시작하여 유지하였고, 그가 제게 결혼을 진지하게 약속하였으며 곧 이행할 상태라고 믿으며 관계를 지속하고 그를 다방면에서 지지해왔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미국에 거주하며 잠깐씩 한국을 오고 가는 동안, 또 최근 한국에 직장을 얻고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저를 적극적으로 기만하여 모든 면에서, 특히 성적으로 철저하게 이용해 왔고,

심지어 본인의 이중 생활 및 약혼 등 모든 기만이 다 밝혀진 후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에서조차 ‘나는 여전히 너를 원하고 사랑하고, 네가 지금 임신하면 내 약혼을 깨고 나와 결혼할 수 있다’며 유도하여 안된다던 저를 감정적으로 설득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연인 기간 내내 제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저의 성적인 사진을 찍거나 전송받아 보유하고 있으며, 마지막 자리에서 이에 대한 영구 삭제를 요구하고 확인하는 제게 정 원한다면 해주겠다 정도의 소극적인 말로만 넘어가 더더욱 두려운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한국의 대기업 C사의 전무로 재직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저와의 관계에서 내내 “너 때문에 한국에 이주했고, C사 취업도 너와의 결혼을 위한 것이며, C사는 사실 수준이 떨어져서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만, 결국 너 때문에 버틴다.” 라며 심리적 조종을 해왔으면서도,

정작 사건이 터진 후 나를 택할 것이 아니라면 한국을 떠나 달라는 저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너 때문에 온 것은 맞지만 한국을 떠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너와 정말 헤어지게 되면 내가 많이 힘들테니 그냥 약혼자를 여기에 데려오겠다" 는 적반하장식 심리적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아버지는 양다리 및 결혼 고민을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가해자의 행태를 묵인하고 방관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배신이 아니라 가족 차원의 기만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헤어지기 싫다. 나도 힘들지만 노력하고 있다"며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훈들며 시간만 끌고 어떤 책임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기만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더 나아가 형사 고발 혹은 합의 유도가 가능할지

성적 피해를 포함한 심리적 조종을 이용한 다방면의 피해 보상, 성적 영상 및 사진 문제 전반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할수 있을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2. 주요 사건 타임라인

- 가해자, A: 미국인(한국계), 어릴 때 이민가서 쪽 미국 거주, 최근 한국으로 이주, 현재 한국 대기업 C사 임원
- 피해자, B: 한국인, 한국 거주, 현재 병원 근무 봉직의

1) 2019년 - 첫 만남 및 짧은 교제

- 2019년 가해자(A)와 피해자(B)는 짧게 교제하였으나, 국제 장거리 연애 문제로 인해 결별.

2) 2021년 - A가 먼저 연락하여 재회 요청

- A가 B에게 먼저 연락하며 재회를 요청했으나, 당시 B는 다른 사람과 결혼 예정이었음.
- B는 A를 만나 이를 알리고 단절을 위해 A를 차단, 이후 결혼식 진행 후 짧은 사실혼 생활을 거쳐 파경.

3) 2022년 - A의 적극적인 구애로 장거리 연애 재개

- A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파경 소식을 알리고 몇 차례 만남 후, A의 요청과 주도로 장거리 연애 다시 시작.
- 장거리 연애 내내 결혼 및 이주 가능성 이야기 나눔.
- 2023년 말, A가 통화로 본격적으로 결혼을 제안하며 "이번에 하와이 와서, 내 아버지를 만나달라"고 요청.
- 하와이는 사정상 못 갔지만, B는 이를 믿고 자비를 들여 A의 출장 장소였던 브라질까지 방문하여 서로 의사 확인.

- 4) 2024년 5월 - 가해자의 한국 이주 및 취업 결정 → “결혼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
- A는 C사(한국 대기업) 전무직을 제안받았고, 이를 “B와의 결혼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
 - “C사가 급이 떨어지긴 하지만, 임원으로 오게 되면 혜택이 좋으니, 한국에서 결혼하고 아 이를 낳고 신혼 생활 즐기다가, 2년 안에 미국으로 같이 돌아가자”는 미래 계획을 제시.
 - A는 이와 동시에 혼전 계약에 준하는 다른 조건들을 구두로 제안했고, B가 이를 승낙.
 - B는 A가 한국에 오면 실질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리라 인식하며, 연인 관계를 지속. 데 이트시 B가 경제적 비용 상당 부담은 물론 거의 모든 것 A 위주로 배려.
 - A는 C사 취업 후 6주 정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한국 방문하여 B와 만날 때마다 결혼 시사. (ex: 11월말 한국 방문시에도 A는 본인의 새어머니가 ‘한국 오게 되면 호텔 결혼식장 알 아볼게요’라고 했다며, 본인 부모님도 이 관계를 알고 응원하는 것처럼 암시)
- 5) 2024년 12월 - A가 실제로는 다른 여자친구와 함께 한국에 입국
- A는 사실 B 몰래 양다리를 걸쳐왔던 다른 여자친구(D)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당분간 함께 지내면서도,
 - B에게는 “나는 아직 미국에 있다”며 식으로 사진 조작, 선물 공세, 적극적 거짓말을 하며 속임.
- 6) 2025년 1월 말 - 하와이에서 다른 여자와 약혼식 진행
- D가 다시 미국으로 떠난 후, 한국에 이제 막 들어온 척 아무렇지 않게 B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A는,
 - 1월 26일, 가족과 친구들을 모아 D와 하와이에서 약혼식을 진행.
 - 그러나 B에게는 “설 연휴라 가족여행을 다녀 오겠다”고만 말하며, 끝까지 사실을 숨김.
- 7) 2025년 2월 -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기만적 관계 유지
- A는 약혼 후 한국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결혼과 아이 이야기 등을 먼저 꺼내며, B와 연인 관계를 지속.
 - B와의 관계가 힘들어질 때마다 “C사 같은 비급 레벨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게 힘들다”, “그렇지만 너와 미래 때문에 여기서 버티는 거다”라는 평계를 대며 종종 목을 매 죽는 시늉과 함께 “너까지 나를 힘들게 하면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말까지 하며 심리적 압박, 거리 조정.
 - 혼란스러움과 고통으로 B가 이별 의사를 물으면 “절대 아니다”라며 불잡으며 스킨십과 잠자리 유도.
- 8) 2025년 2월 23일 - 약혼 사실 발각
- B는 A의 약혼자 D가 전체공개로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A가 1월 말 약혼을 했음을 직접 확인.
 - 뿐만 아니라 A가 D와 2019년부터 미국에서 공식/공개 연인으로 지냈으며, 함께 강아지들을 키우며 “pawrents”라고 본인들을 칭하는 등, 이미 동거 관계에 준하는 깊은 관계였음을 확인.
 - B는 사실 A와의 관계의 시작과 중간에, A가 정말 싱글이 맞는지, A의 일상 흔적에 주기적으로 보이는 누군가(D)와 혹시 어떤 관계인지, 이름까지 콕 짚어서 여러 차례 물은 적 있음.

- A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간에, 본인은 싱글이고, 그 여자는 다 같이 어울리는 친한 친구 중 하나일 뿐이다. 라고 거짓말로 대답해왔음.
- 즉시 A에게 이를 추궁하였고, 모든 것을 속였으니 인생에서 사라져달라고 요구하자,
- A는 감정적으로 B를 불갑이며 “D는 정말 친구같은 존재이고, 지금도 사랑하는 건 너다,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못 믿겠으면 내일 바로 혼인신고를 하자” 등의 말을 반복.
- B는 “그렇다면 D와 헤어지고 와라”고 요구했고, A는 “알겠다”면서 만남 요구

9) 2025년 3월 2일 - 직접 대면, 결혼을 빙자한 최악의 기만

- 만나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B에게 A는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내 행동을 이해 못 하겠지만, 여전히 진심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결혼하고 싶은 건 너”라는 말을 반복함.
- 감정적으로 약해진 B에게 A는 “네가 임신하면 너를 반대했던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하며, 주저하고 안된다는 B를 설득하여 스킨십과 성관계를 유도.
- B는 A의 말을 믿고, “이 사람이 그래도 나와 결혼하려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두 차례 잠자리 가짐.
- A는 관계 후 “내가 C사 부사장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결혼해서 아이 많이 낳아달라, 다 책임지겠다”는 발언, 아버지를 바로 만나서 해결하겠다고 하고 헤어짐.

10) 2025년 3월 2일 이후 - 끝없는 태도 변화와 책임 회피

- 이후 A는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반대한다”, “너를 떠날 수도 없지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 “나도 힘들다” “원하는대로 알아서 나를 쳐라. 죄값 받겠다” 는 말만 반복하며 자기 연민적 태도 고수.
- B가 “나와 헤어진다면, 나 때문에 왔다는 직장과 한국을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하기까지 하자
- A는 “너 때문에 한국에 온 것은 맞지만, 이제 아버지 생각하면 한국을 떠날 수 없고, 너와도 헤어지기 싫지만, 만약 네가 나를 떠난다면 나도 힘들어 견딜 수 없으니, 그냥 약혼자를 한국으로 불러서 같이 살겠다”라고 함.
- B는 오기가 생겨서 “그렇다면 나에게 정당한 피해 보상이라도 해라.”고 요구하자
- A는 먼저 ‘당연히 해줄게, 얼마 줄까? 1억? 3억? 아님 생명보험 걸고 죽어줄까?’ 라는 조롱 섞인 발언을 함.
- A는 빠른 결단을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는 B의 감정을 이용, 여전히 사랑한다면 연인처럼 굴면서 일주일 넘게 시간을 끌고, 태도를 오락가락 애매하게 바꾸더니, 결국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중.

3. 법적 대응 검토 요청

가해자는 끝까지 저를 본인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며, 제가 조용히 사라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선을 한참 넘은 가해자에게 그래도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최대한 기회를 줬던 저이지만, 이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해자가 제게 의도적으로 입힌 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 및 제가 조금이나마 납득할만한 보상이라도 남는 마무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결혼을 약속해놓고 타인과 약혼, 그러고도 관계를 유지하며 잠자리 지속, 마지막까지 책임과 임신 운운하며 성관계 가진 것.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뿐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기만하며 끼친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피해 전반에 대한 손해 배상.
-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법적 책임이 물어지고, 얼마까지 승소 가능한지 검토 요청.

✓ 가해자의 성적인 사진 및 영상 보유 문제 해결

- 가해자는 교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성적인 사진 및 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거나 직접 찍어서 보유.
- 가끔 몰카도 찍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 물어본 순간도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전체 파악 불가.
- 피해자는 사건 이후 모든 피해자 관련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실제 삭제를 확인할 수 없었음.
- 가해자가 삭제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한, 이는 평생 유포 가능성은 내포하는 것이므로, 형법상 '불법 촬영물 보관'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싶음.
- 이 자료의 유포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고, 법적 압박을 통해 삭제를 강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검토 요청.
- 필요하면 한미 양국 다 진행, 미국은 리벤파르노 유포뿐 아니라 본인의 동의 없는 보관만으로도, 특히 가해자가 적을 둔 캘리포니아에서는 엄벌로 다스리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향후 관련 어떤 문제라도 발생시 일체 가해자의 책임이라는 것 무조건 공식적 법적 확인 받을 것

✓ 형사적 성범죄 고발까지 법적 검토까지도 혹시 가능한지

- 혼인빙자에 의한 간음 자체는 폐지됐지만, 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관계가 지속되어 사실상 동의 없는 성관계가 유도된 것이라고 본다면, 혹시 형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 준강간까지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 특히 마지막 만남에 가해자가 D와의 파혼 및 피해자와의 결혼 및 임신을 빌미로, 여러모로 취약해진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게 하여 성관계를 유도한 부분이 형사적으로도 다툴 수 있는 요소인지, 형사 고소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가능한지도 검토 원함.

✓ 가해자를 한국에서 스스로 떠나게 할 정도로 압박이 가능할지

- 가해자가 서울에 계속 남아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통이 상상할수 없을 만큼 커지고 지속될 것이므로, 법적으로 가해자가 한국을 떠나게 만드는 압박 요소가 있는지 적극 검토 원함.
- 예를 들어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해 체류 부담을 주고, 온 국민이 알고 매일 사용하여

평판에 민감한 C사에서 임원직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윤리적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 피해자가 만족할만한 합의 도출 가능성

- 법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할지라도 금액이 크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가해자를 한국에서 강제로는 쫓아낼 수 없다는 것도 암.
- 만약 형사 소송까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가해자의 행동과 인성에 기반하여 추측컨대, 말도 안되는 공격이나 보복 등이 이뤄질까봐 사실 극도로 두렵고.
- 사건이 터진 후 2주 가까이 불면과 식음 전폐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실제 업무, 사회생활은 물론 개인 사생활 모두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면서 피해자에게 닥친 고통과 손실이 막대함.
- 과거와 현재의 고통을 떠나, 앞으로도 빠른 해결이 되지 않고 질질 끌게 된다면 정신과 육체 모두 더욱더 소진되어 빠르고 완전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됨.
- 무엇보다 피해자 본인이나 주변에 어떤 종류의 악영향이나 소문, 피해가 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함.
- 더 이상 개인적인 에너지가 아닌 전문가의 손을 빌려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 그렇다면 소송까지 실제 전개가 되어 결론까지 시간은 길어지는데, 정작 피해자가 얻게 되는 실익이 없다면, 차라리 가해자를 최대한 압박하여 실제 소송이나 폭로전으로 가기 전, 한국을 즉시 떠나는 조건을 약속받고 그나마 실질적 보상이 되는 합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 보유하고 있는 증거(카톡, 사진, 녹음 등등)와 정황 기록, 요구 사항 등을, 내용증명 같은 형태로 보내서 가해자를 전략적으로 최대한 압박하여 합의에 응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지.

✓ 합의로 몰아갔을 때 가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타당하며 실행 가능한 금액 수준.

- 기본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판례를 보면 1,000만 원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고의적인 기만과 심리적 조종 및 혼인을 전제로 한 사기 행위가 장기적으로 지속된 경우, 합의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 무엇보다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잃을 것이 많고, 형사소송 가능성까지 고려할 경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할지.
-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는 물론, 가해자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잃을 것이 많으며(C사 임원직, 고연봉, 스택옵션, 복지 등 각종 베네핏, 약혼녀와의 관계, 한국 미국 양국에서의 사회적 개인적 평판, 특히 국내에서 아버지 위신 등) + 가해자가 민형사 소송을 당할 가능성까지 스스로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합의금까지 요구가능지 검토 요청.
- 보상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해자가 스스로 1억 3억 등을 불렀던 걸 생각하면 최소한 본인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는 뜻인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과연 이것이 현실적인지.

✓ 이유 불문 합의 불발, 소송까지 진행 시, 법적으로 안전한 범위 내에서 회사 및 주변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방법 검토 요청 + 피해자 보호

- 가해자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합의 불발시, 소송 진행 중 혹은 그 후에 C사 및 주변인(약혼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지.
- 특히 C사의 경우, 취업때부터 이를 피해자에게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을 위한 단기 레버리지 같은 곳으로 묘사하며 임원으로 오게 되었을 때 얻게 될 베네핏 (5억 이상의 고연봉, 스톡옵션, 월세 700-1,000만원 상당 사택, 전담 차량/기사/비서 등등)을 강하게 어필함. 재직중에도 상식적으로 임원이라 보기 힘든 언행 (에이급인 내가 있을 곳이 아닌 비급 회사라 평가 절하, 회사 및 직원 비하, 누구를 언제 자를지 개인 정보 공유하며 논의, 직원 도덕성에 대한 혐담, 여긴 그냥 잠깐 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곳 등등)을 피해자에게 일삼으면서, 그래도 피해자 때문에 C사에서 버틴다면 이를 심적으로 조정하고 압박한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회사 HR에 윤리적 차원에서 강력한 문제 제기 원함.
-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한 사실을 최대한 강력하게 알리면서도 스스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최대한 압박을 가할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조력을 원함.

✓ 추가 고려 사항 - 가해자의 배경 및 가족의 개입 가능성

- 가해자의 말에 따르면, 그 아버지는 아들의 양다리 및 결혼 고민을 어느 정도는 알았음
- 이 사건이 터진 후, 가해자가 “내가 원하는건 너라고 다시 아버지를 설득해보겠다”며 시간을 뺏.
- 결국 그 아버지가 “한국 사회가 좁은데 피해자의 사실혼 전력이 문제된다”는 이유로 결혼을 최종 반대했다며 그래도 본인은 노력중이라며 끝까지 교묘하게 피해자의 신변에 평계를 돌림.
- 저 말이 사실이건 아니건 실제로 가해자의 아버지는 한국 사회에서 높은 공직을 지낸 인물로, 네트워크도 많고 주변 시선을 신경 쓸 위치에 있음.
- 가해자는 현재 대기업 임원이자 미국 국적자이며, 사건이 커지면 되려 아버지와 함께 피해자를 음해하거나 압박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
- 사귀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오픈했던 약점이나 치부, 둘만의 비밀이나 사연 등에 대해 사이가 좋을 때도 가해자가 ‘내가 너 이런거 다 아는데’ 혹은 ‘나도 너 때문에 놀라고 상처받았어’라고 가끔 들춰냈던 것이 떠올라 더더욱 두렵고 수치스러움.
- 이러한 가능성까지 변수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받으며 강력한 대응할 수 있을지 꼭 알고 싶습니다.

이 사건이 법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공식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아내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다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뭐라도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바로 실행해서 가해자가 손 못쓰고 바로 꼬리 내릴 수 밖에 없게 철저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제발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